

부정직한 조직에서 살아남기

성인경

“나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조직의 쓴 맛을 보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조직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조직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스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부정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직의 생리와 요구를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직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거든요.”

“조직에 경쟁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 되게 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자기 개혁과 발전에 게을렀습니다. 기회가 많을 것이라 착각했거든요.”

“전략적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멘토가 없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거든요.”

“뜻이 맞는 동지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동료까지도 모두 경쟁 상대였거든요.”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자유라는 나방을 쫓았거든요.”

“리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거든요.”

어떤 조직에 몸을 담아 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과 착각을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만약 조직에 몸을 담아 보고도 한 번도 이런 생각과 착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면, 아마 그는 천사이거나 거짓말쟁이일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차라리 죽기보다 못한 부조리하고 부정직한 조직이 많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피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가가 없도다.”(전도서 4:1)

여러분은 이런 조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면 부정직한 조직에 살아남는 지혜를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1. 부정직한 조직의 현실을 알라.

한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부정직하게 하는 요인들 중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정치 분야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부정직할 것 같은 직종’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도 정치 분야는 항상 수위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 다음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로는 “경제와 기업, 교육, 언론, 의료 등이다.”¹⁾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딜버트(Dilbert)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정직한 기관(weaseliest organization)의 순위의 첫 번째는 국회와 백악관이다.”고 발표했습니다.

- 1) Congress, Parliament (국회),
- 2) White House (백악관, 대통령궁),
- 3) Political parties (정당들),
- 4) New York Times, Fox News Corporation (뉴욕 타임즈나 폭스 뉴스와 같은) 언론사들,
- 5) Organized religion (제도권 종교)

여기에 쓰는 “부정직한”이란 말은 “weasely”이란 말인데, “dishonest”가 아니라는 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weasely”이란 말은 ‘족제비’, ‘비열한’,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부정직한 조직은 족제비같이 비열한 조직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²⁾

어느 조직이나 부정과 음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잔꾀와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놈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메데 파르샤 왕궁 안에서 일어난 각종 음모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 1) 최초의 음모 사건은 에스더 2:19-23에 나오는 왕궁 내시 박단과 테레스가 왕을 죽이려던 음모였습니다. 모르드개가 듣고 고발하므로 일단락되었습니다.
- 2) 두번째 음모 사건은 하만이 모르드개가 인사를 잘 안한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에스더 3:7-15)
- 3) 세번째 음모 사건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높은 나무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에스더 5:9-14)

조직에서 제일 부정직한 사람들은 주로 리더들입니다. 윤언철씨는 “비윤리적인 리더, 이렇게 행동 한다.”는 글에서 정직하지 못한 리더의 5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³⁾

- 1)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한다.
- 2) 공사(公私) 구별을 하지 못한다.
- 3) 성과는 독점하고 책임은 회피한다.

1) 기독교윤리연구소 창립포럼, 2005. 4. 28.

2) 딜버트는 본래 만화 이름이며, 1989년 4월 16일에 미국의 작가 스콧 아담스(Scott Adams)에 의해 시작되었고, 기업 내부의 모순, 웃기는 경영지침, 무능한 상관, 관료제 등을 풍자해 미국 직장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어 나중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 딜버트는 세상에서 가장 부정직한 나라(Weaseliest Country)는 1)North Korea (북한), 2)USA (미국), 3)Canada (캐나다), 4)France (프랑스), 5)Germany (독일)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딜버트는 또한 세상에서 가장 부정직한 행동(Weaseliest Behavior)도 조사했는데 다음과 같다. 1)Blaming fast food restaurants for making you fat (당신이 살찐다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비난하는 것) 2)Religious extremism (종교적 과격주의-extremism:극단주의 과격주의) 3)Creating computer worms/viruses because no one will date you (아무도 당신과 데이트 해주지 않았다고 컴퓨터 웜이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일) 4)Using cell phones in restaurants (레스토랑에서 휴대폰 사용) 5)Driving a Hummer(홍얼거리며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3) LG주간경제, 2006. 2. 22.

- 4)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 5)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정보이지만, 이상의 현실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1) 부정직한 조직은 한 두 곳이 아니라 상당히 넓게 퍼져 있으며, 특정한 기관과 리더만 아니라 사회 거의 모든 곳이 부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 누구도 부정직한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 기독교인들도 어렵겠지만 거룩과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기독교인에게는 더욱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3) 더욱 난감한 것은 조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약무익”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정직한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적실한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 4) 조직을 버리고 떠나거나, 복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쉬울 수 있겠지만 양심에 거리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5) 부정직한 조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흠탕물 속의 물고기와 같은 신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윤리연구소 창립포럼의 보고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직한 사회 속에 사는 국민은 물과 물에 사는 물고기로 비유할 수 있다. 물은 문화이며 물고기는 각 개인이다. 물이 더러우면 그곳에 사는 물고기도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 일시적으로 물고기가 그 물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시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2. 부정직한 조직에서 살아남는 지혜가 무엇인가?

미리 말씀 드리지만, 흠탕물 속에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도 힘들지만 평생 살아남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 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현실을 바탕으로 부정직한 조직의 쓴 맛을 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베드로, 다니엘, 다윗, 에스더, 요셉을 중심으로 부정직한 조직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라.

보스를 욕하기보다, 보스에게 지혜롭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종들에게 “관용하는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Servants, be subject to your masters with all respect, not only to the good and gentle but also to the unjust.”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베드로전서 2:18)

베드로는 좋은 보스에게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나쁜 보스, 즉 까다로운 리더나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먼저 실천적인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거나(베드로전서 2:12b,

2:15b, 2:16b, 2:20a, 3:16), 비 기독교인들을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1b, 2:12c) 2)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과(베드로전서 2:13-14, cf. 로마서 13:1), 악한 권세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므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2:13', 2:17, 3:6b, 에베소서 6:9, 마가복음 12:14-17, 로마서 13:1)

어떤 조직원은 조직의 보존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시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권익을 위해 조직이 사라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원은 조직의 질서보다 자기 권력을 앞세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권리를 위해 조직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의 권익과 권리도 중요하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조직의 질서와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조직의 생리와 요구에 부응하라.

여러분은 당신이 속한 조직의 생리와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대 사회의 조직은 사람보다는 업적을 우선시 하고, 서로 돕는 것보다는 경쟁을 부추기고, 창의성보다는 전통답습을 요구하고, 의사교환보다는 명령하달이 빠르고, 능력 있는 인재보다는 마음에 드는 인재가 우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을 비판하거나 뛰쳐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생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대비하거나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급선무입니다. 물론 조직의 생리와 요구에 타협하면서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의 생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조직을 욕하거나 떠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25년 이상 몸담았던 라브리는 기독교 조직이고 국제적인 조직이지만 그 생리에 맞는 무서울 정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몸담고 있는 조직의 다음과 같은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습니까?

- 1) 실력 중시: 각 사람들의 고민과 요구에 적절한 대안과 대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 나이 극복: 다양한 세대를, 특히 청년 문화와 코드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
- 3) 체력 한계: 건강과 체력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4) 국제 감각: 외국인들과 그들의 문화, 생각, 언어를 따라 잡아야 한다.
- 5) 영성 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순간순간 믿음으로 산다.
- 6) 경제 압박: 교육비, 생활비, 문화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견뎌내야 한다.

(3) 반대자 혹은 적이 많다는 것을 직시하라.

자신이 부정직한 조직 내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경쟁자, 반대자 혹은 적이 많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가장 부정직한 ‘국가’라는 조직에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반대자 혹은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사무엘하 15:13-19:2) 다윗은 “많다(라뵤임, many)”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시편

3:1-2) 압살롬, 요압, 시므이, 아히도벨 등은 주요 인물들이었고, 그 밖에도 반역 초기에는 200여명의 핵심 세력이 압살롬 편이었으나,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사무엘하 15:13)고 했던 것으로 보아, 국민 대부분이 그로부터 등을 돌린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반대자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옛 친구 ‘시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권역 누수가 생기니까 뒤통수를 때렸는데, 다윗의 과거를 들추어내었습니다. 즉 ‘압살롬의 쿠데타는 다윗이 저지른 밋세바 사건에 대한 대가요, 그보다는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대가’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사무엘하 16:7-14) 그것은 친구의 등에 꽃은 악질적인 비수이고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이처럼 흠탕물과 같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세상입니다.

(4) 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부정직한 조직에서 조직 내의 반대자 혹은 적에게 눈을 팔고 있다가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루이스(C. S. Lewis)도 그것을 잘 알았는지, 그의 책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사자 아슬란 왕이 어린이들에게 마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마녀는 눈으로 사람을 홀린단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녀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반대자나 적의 궁극적 공격목표는 자리를 빼앗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적의 목표는 인간질이며 영혼의 파멸입니다. 시편 3:2의 “나를 가리켜(to my soul)”라는 말은, ‘내 영혼을 향해 하는 말이’, 혹은 ‘내 존재의 본질에 대고 하는 말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즉 원수의 공격 목표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인간적인 이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영적인 관계의 이간과 단절을 말합니다.⁴⁾

다행히 다윗은 마녀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아남았습니다.(시편 3:3-4) 다윗이 말한 “방패”라는 말이 그것인데, 이 방패는 옛날의 군인들이나 전투경찰들이 사용하는 방패와는 전혀 다른 방패로서, ‘앞뒤를 막아주는 방패’를 말합니다. 적이 앞만 공격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비열한 마귀나 친구는 언제나 등을 공격하거나 뒤통수를 공격하기 때문에 앞뒤를 막아주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적들과 싸우느라 바빠 인간질에 놀아나거나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적에게 계임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조직을 변화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조직을 타할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5) 자기 개혁부터 시작하라.

흠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위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면 좋지만 호수 아래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만 못합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인 프리더먼은 중국의 개혁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란과 함께 살면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노벨평화상을 받은 류사오보의 정치적,

4) 시편 13:1에서는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했고, 시편 43:2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를 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 같은 영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

사상적 자유 요구)을 수용하므로 점진적으로 톱다운(top-down) 에너지를 줄이고 보텀업(bottom-up) 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중국은 혼란을 다룰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⁵⁾ 중국처럼 “Top-down”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Bottom-up” 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자기 개혁부터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벨론 제국과 메데 페르샤 제국의 조직적인 악을 개혁하기 전에 다니엘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다니엘 1:8) 마카미 전통이나 유대 전통 중에 하나는 유대의 자유를 위해 싸운 투사들은 불결한 음식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음식법은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지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6)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자기 변화의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음에 하자.”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위대함은 두 가지입니다.

1) 다니엘은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면 뜻을 정하지 않은 것만 못했을 것입니다. 보통 청년들의 주특기는 “단식 선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나 “30년 목표”와 같은 낭만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도록 허락해 주셔서 육식을 먹은 자와 시험하여 보고 결정 하소서.”(12-13)라고 하는 아주 현실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대안은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2) 다니엘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기만 유익을 보는 대안을 마련했다면 뜻을 정하지 않은 것만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송이버섯을 구워먹을 때 표고버섯이나 구워먹고, 다른 사람들이 인삼뿌리를 삶아 먹을 때에 무우뿌리를 씹을 각오를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손해를 감수한다면 대안은 많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할 때, 큰 성이나 좋은 땅으로 가지 않고 못 쓰는 땅으로 알려진 석회석 굴이 많은 저지대 황무지에 있었던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⁶⁾ 현실 가능한 대안과 손해를 감수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전략적 사고가 있습니다.

(7) 좋은 멘토를 옆에 두라.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려면 자기 꽤만 믿지 말고 좋은 멘토나 전략가를 옆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림절마다 기억하는 민족의 어머니가 있으니 그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어로 왕(King Xerxes the Great, 519? - 465 B.C; 영화 ‘300’에서 마케도니아를 쳐 들어온 페르샤 왕?)이 하만의 계략도 모르고 유대인들을 학살 명령을 내렸을 때, 왕비로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한 사람이 에스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옆에는 모르드개라는 멘

5) 토마스 프리드먼, ‘중국에 자유가 필요한 이유’, 동아일보, 2010. 10.19.

6) 다윗이 주로 피신해 다닌 곳은 십황무지 수풀이나(사무엘상 23:14), 마온황무지(사무엘상 23:24), 엔게디요새(사무엘상 23:29) 등 대규모 토벌 작전을 벌이기 힘든 난공불락의 황무지, 저지대, 요새가 많았다.

토 혹은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1) 에스더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민족 학살의 위기 앞에서 3일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一死覺悟)”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모르드개로부터 결단력과 담대함 그리고 결연함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에스더 2:20)⁷⁾

2) 에스더는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확실한 기회를 얻을 때까지는 전략상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때를 기다리고 비밀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에스더 6:1-11)⁸⁾

3) 에스더는 아하수에로가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위기에 맞는 옷까지 걸칠 줄도 알았습니다. 3일간 금식하여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왕후의 예복(royal robes)”을 입고 왕 앞에 들어갈 정도로 센스 있는 여자였으며,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줄도 알았고, 왕 앞에서 눈물로 호소할 줄도 알았습니다.(에스더 8:3-6)

(8) 뜻이 맞는 동지들을 구하라.

단독 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 여럿이 뜻이 모이면 성공하기 쉽습니다. 다니엘도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었고 다윗도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도피 중에 만든 아들람 공동체에서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아들람에는 세 부류가 모여 들었습니다. 1)정치적 박해와 모종의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2)경제적으로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3)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 400명이었으나 나중에는 700명에서 900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기스 왕 앞에서는 ‘거짓 광인’ 노릇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사무엘상 21:10-15), 아들람에 모인 사람들은 비록 거지와 빚쟁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으나 부정직한 사울 왕과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좋은 동지들이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윗 왕국 건설의 초석이 되었습니다.⁹⁾ 아들람에서 가장 스틸 넘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세 용사의 ‘물 길어오기’ 이야기일 것입니다. 부정직한 사울과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동지들이

7) 에스더가 보여준 용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래부터 에스더의 성격이 담대하고 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다고 볼 수도 있고, 모르드개가 “너도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반 협박(?)에 용기를 냈다는 말도 가능하지만,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발견하고 위험하지만 침묵하지 않고 에스더를 통해 그것을 왕에게 보고 하는 것을 직접 보며 용기를 배웠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모르드개(Mordecai)라는 이름은 ‘Marduk’ 즉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딴 것이며, 본래는 벤야민 지파의 사람이며, 페르샤 제국의 수산성에 관리로서 일하는 사람이었다.(에스더 2:5-7)

8) 에스더가 말을 참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잠을 못 이루다가 독서를 통해 암살범으로부터 자기를 구해 준 사람이 모르드개라는 것과, 악한 음모를 꾸민 하만의 정치적 야욕을 일깨워 준 에스더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둘 다 충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신성한 왕으로서 한 번 발효한 법령은 바꿀 수 없다는 전통을 깨고 유대인 학살 법령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할 수 있는 신뢰와 개혁의 근거가 되었다.(에스더 8:1-17)

9) 다윗의 ‘아들람’ 동지였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 왕국의 국방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사무엘하 8:16) 여호사밧은 다윗 왕국의 ‘사관(마즈킬)’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즈킬’은 ‘기억하게 하는 자’란 뜻인데, “왕의 명령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건들을 기록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직무자”(Keil & Delitzsch Commentary, Vol. II, p.365)를 가리키는 듯하다. 공동 번역은 이를 ‘공보 대신’으로 번역했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낸 아들람 굴의 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다음은 상상으로만 복원한 프로그램이다. 우선 사울 대피 훈련, 마음의 상처 치유, 격려, 상담, 예배,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 성경공부, 각종 악기 레슨과 노래 공부, 칼 쓰는 법과 병법 및 전략 연구, 빛 청산 방법, 돈 버는 법, 국가재건전략 논의, 농자 짓는 법, 석척 따는 법, 빗물 연구, 성질 고치기, 우정시험, 용기 테스트...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윗은 분명 행복한 리더였음에 분명합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에게 하닥(Hathach, Hathak)이라는 내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에스더 4:5) 하닥은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의 말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부림절 때마다, 마치 선들리의 묘비에 수 천 명의 유대인들이 감사의 돌을 올려놓았듯이, 하닥의 무덤에도 수 십 만개의 꽃송이를 갖다 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 자기의 책임을 다 하라.

부정직한 사회에서 쫓겨나는 비결은 자기 책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딴 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스파이를 심었습니다. 압살롬이 모략꾼인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생포 작전을 세웠을 때에, “그 작전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옆에서 훈수를 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친구 후새였다. 후새는 다윗이 보낸 스파이였습니다. 둘째, 다윗은 연락책을 두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 나올 때에 일부러 남겨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면 누군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고 또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어야 왕궁에서 압살롬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제사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궁전에 심어놓은 비밀 연락망이었던 것입니다.(사무엘하 15-17)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런 치밀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나친 게 아니냐?”고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세상이 부조리 할수록 자기 본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말하는 “본분”이라는 “전부”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세상이 부조리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첫째,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 공부해야 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 사람은 업무성과가 나도록 제대로 해야 합니다.

(10)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

“리더가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리더의 책임은 위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조직을 살리는 거인 리더]라는 책에서 스티븐 슈라기스¹⁰⁾와 릭 프리쉬먼¹¹⁾도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탁월한 성과를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모든 조직에는 절대적인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비범한 리더가 있다는 사실이다. 구성원들이 확고한 목표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진두지휘하는 것, 눈앞의 이익을 넘어 조직 전체의 꿈과 비

10) 스티븐 슈라기스는 20여 년에 걸쳐 마케팅과 미디어 부문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으며, 현재는 북미대륙에서 가장 큰 평생교육기관인 러닝에닉스의 전국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 그리고 하버드경영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11) 릭 프리쉬먼은 최고의 출판사 중 하나인 플랜드텔레비전아트에서 20년 동안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PTA의 모회사인 루더핀의 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고 활동적인 출판업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을 창출해내는 것, 이 모두가 리더의 역할이다. 아무리 유능한 실무자들이 많아도 훌륭한 리더가 없으면 조직은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변화를 바란다면 리더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리더가 변화를 원치 않을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리더는 권력으로 조직을 바꿀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그의 권위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법이 앞서는 조직일수록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히 “때(시기)와 판단(방법)을 분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지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전도서 9:3-6)

맺는 말

부정직한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입니다. 부정 앞에는 백가지 지혜가 무용지물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조직의 악은 무섭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기보다 강한 지혜”를 가지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전도서 9:17,18) 예수님도 세상으로 나가는 전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셨습니다.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마태복음 10:16)